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통계학과 보건정보통계전공

팽 혜 민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 박 소 희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통계학과 보건정보통계전공  
팽 혜 민

## 팽혜민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박 소 희 인

심사위원 남 정 모 인

심사위원 김 규 리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9년 6월 일

## 감사의 글

일과 육아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며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석사과정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영역에 대해 지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 하며 이 자리에서 감사의 글을 쓸 수 있기까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지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움을 전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친정엄마 ‘강화숙’님께 표현할 수 있는 이상의 감사함을 전합니다. 졸업 후 주말마다 놀아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기다려 준 소중한 딸 ‘김지아’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부족하고 바쁘지만 불평한마디 없이 항상 응원하고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 ‘김유태’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격려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신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만남을 시작으로 논문 직전까지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박소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아낌없이 보탬을 주신 남정모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웃는 모습과 함께 편안함을 주시는 김규리 교수님 덕분에 예심 때 긴장이 조금은 풀렸던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사과정을 함께 하며 옆에서 늘 도와주고 배려해준 동기들 심지연, 정지하, 김지애, 장운섭, 신지혜, 김나영, 진혜수, 박우철, 문성희, 송수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항상 서로를 응원해 준 지연언니, 지하 너무 고맙다.

지면으로 미처 언급하지 못했지만, 저를 아끼고 격려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6월

팽혜민 올림

# 차 례

국문요약 .....	iv
<b>I. 서론</b>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b>II. 문헌고찰</b> .....	5
1.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	5
2.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 우울감 .....	6
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 삶의만족도 .....	8
<b>III. 연구방법</b> .....	10
1. 연구설계 .....	10
2. 연구자료 .....	10
3. 연구대상 .....	13
4. 변수의 선정 및 정의 .....	14
5. 분석방법 .....	18
<b>IV. 연구결과</b> .....	19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
2. 연구 대상자의 차수별 비교 .....	23
가. 범주형 변수에 대한 차수별 빈도차이 .....	23

나. 연속형 변수에 대한 차수별 평균차이 .....	27
3.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31
가.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31
나.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36
다.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별) .....	40
라.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령) .....	40
V. 결론 및 제언 .....	45
참고문헌 .....	49
부록 .....	53
Abstract .....	55

## 표 차 례

표 1. 연도별 연구대상자 수 .....	12
표 2. 우울척도 문항, CES-D10 .....	14
표 3. 주요변수 설명 .....	17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 1차년도(2008년) .....	21
표 5. 연구대상자의 차수별 특성(범주형) .....	25
표 6. 연구대상자의 차수별 특성(연속형) .....	29
표 7. 연차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기간 변수 평균 차이 .....	30
표 8.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6년차 데이터) ..	34
표 9.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2-6년차 데이터) .....	38
표 10.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별구분)	41
표 1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령구분)	43

## 그 림 차 례

그림 1. Flow chart of study population selection .....	13
--	----



## 국문요약

###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 변화에 따라 맞벌이 가구 비율은 지속 상승중이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자녀의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다양한 정책, 연구, 보도자료가 생성되고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는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아 부담 등에 따른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손자녀 돌봄에 대하여 실질적 부담을 떠안게 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이들의 우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2-6차(2008년-2016년) 자료이다. 본 패널 조사의 1차 기본조사는 2006년 6,171가구의 10,2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격

년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이루어졌다. 5차(2014년)에서는 일부 신규패널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중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51세~80세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결측치를 제외하여 총 21,560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손자녀 돌봄여부, 돌봄 손자녀 수 및 개인특성, 가구특성에 따른 우울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

첫째, 손자녀 돌봄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집단차이 검증 결과로 알아본 일반적 특성으로는 우울감에 있어서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종합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고 연령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으나 성인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 공동체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삶의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B=3.388, p<.001$ ), 우울감은 낮음( $B=-.775, p<.001$ )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B=1.954, p<.001$ ), 우울감은 낮음( $B=-.526, p<.001$ )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손자녀 양육의 영향 분석에서는 조부 및 조모는 손자녀 양육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조모의 경우에만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중년기 및 노년기 모두 손자녀 양육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만족도 측면에서는 중년기 조부모에게만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에게 삶의 만족도 및 우울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교육프로그램, 양육수당 등 정책적 지원의 확대 등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후속연구에서는 손자녀 돌봄 여부의 전이에 따른 영향, 조부모의 성인자녀, 손자녀 특성, 돌봄 시간, 양육기관활용 등 돌봄 강도, 조부모 우울수준에 대한 임상진단 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I. 서론

## 1. 연구배경

통계청에서 2018년 12월 발표한 「2018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3년 42.9%에서 2017년 44.6%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는 가정의 비율은 2009년 23.2%에서 2012년 35.8%, 2015년에는 6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성인자녀 중 90.2%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손자녀를 돌보는 주된 이유로는 성인 자녀의 손자녀 양육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76.0%)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성인 자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이나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49.8%) 육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진 외, 2015) 반면, 성인 자녀는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거나(32.2%), 직장생활이나 학업 때문에(31.6%) 자녀를 부모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워킹맘 본인(45.4%)보다 친정어머니(49.1%)가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sup>2)</sup>

정부는 출산장려 및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돌보미 등 개별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사적으로 육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정책지원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연

---

1) "손주니까 키우지"... 할마·할빠 공짜 육아 61%", 서울신문, 2017년 7월 25일

2) "KB금융, 영·유아 주양육자는 '워킹맘' 보다 친정어머니로 나타나", Baby Times, 2018년 10월 07일

구, 보도자료 등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일부 보도자료에서는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면 손주돌봄으로 사회활동을 못해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sup>3)</sup>의 가능성이 적고<sup>3)</sup>, 손자녀를 돌보며 체력적인 한계와 스트레스, 심장 등 신체적 질환이나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sup>4)</sup> 등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봄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긍정적인 측면의 목소리도 있다. 한 언론의 손자녀를 양육 중인 60대 조모의 인터뷰에서는 “몸은 힘들고 늘 매이는 처지가 됐지만 첫애를 돌보면서 딸 부부와 관계도 더 좋아지고, 무엇보다 양육의 행복감이 컸다. 몸은 힘들지만 아이의 재롱을 볼 때는 웃음이 절로 난다”라고 말했다.<sup>5)</sup> 더불어, 손자녀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부모밑에서 자라게 되면 부모와 조부모의 문화를 고루 경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부모는 아이의 발달에 조급해 하지 않아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인성이 발달하고 아이의 자존감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구결과, 조부모와 접촉이 많은 아이가 학업성적이 좋고, 사회성 및 성취감이 높다.<sup>6)</sup>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부담 증가에 따라 조부모 관점에서의 손자녀 양육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부모 측면에서 손자녀 양육 효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측면이 모두 보고 되고 있다. 과거에는,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해경, 2002; 오진아, 2006; 원서진, 2011, 전연우 · 김윤숙 · 조희숙, 2012)가 보고되었으나, 최근에는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나타났다. 손자녀의 양육이 조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김지현, 2012; 전해정 외, 2013)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

3)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문화일보, 2018년 8월 21일

4) “황혼육아 떠밀리는 ‘할마할빠’ 고충 누가 알아줄까?”, 세계일보, 2019년 3월 30일

5) “손주 키우니깐 뭐가 좋냐고요?”, 한겨레, 2016년 06년 23일

6) “황혼육아에서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갈등 ... 어떻게 해결할까?”, 조선에듀, 2018년.07년.24일

(최경덕 · 안태현, 2016).

한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부담 증가에 따라 2018년 11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 수당까지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교육을 2011년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육 이수 조부모들에게 손자녀의 나이나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제도화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자녀의 돌봄으로 인한 조부모의 우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개인적 특성, 가구적 특성 등을 파악한다.
- 둘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 수준을 파악한다.
- 셋째, 조부모에서 손자녀 양육 여부와 삶의 만족도 및 우울수준과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 가설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을 낮추는 연관성을 보일 것이다.
- 가설2.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연관성을 보일 것이다.

## II. 문헌고찰

### 1.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조부모가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족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리고 양육이 끝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며(배진희, 2007) 민족과 인종에 따라 손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감, 함께 사는 동거비율도 달라 양육 및 양육형태를 분류하기에는 기준이 모호 할 수 있다(Pinson-Millburn et al. 1996). 그러나 크게 주양육 자로서 전담양육과 공동양육 조부모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김은정, 2012). 또한, 가정해체 등 가족문제로 인하여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성인자녀들을 대신하는 경우와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양육으로 나누어진다(최희진 외, 2011). 과거에는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손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즉,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양육자에 대한 신뢰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녀들의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는 것이다(최윤희, 2012). 실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가정의 비율(보육 기관 병행)은 2012년 35.8%, 2015년에는 65.6%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변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성인자녀로부터 부양 받는 것보다 성인자녀들의 생활을 지원해 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전혜정, 조규영 외, 2013) 2019년에는 손자녀의 간병을 위한 간병 휴직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 언론에서는 ‘황혼 육아’ ‘손주돌보미’ ‘행복한 손주 돌봄 가이드북’ 등을 다루는 등,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경기신문, 2019.02.10.).

지금까지 손자녀 양육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김경란(2006) 자료에서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하루의 반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는 40.32%이며, 손자녀 양육 동기는 딸이나 며느리의 직장의 이유가 95.99%로 가장 많았다. 또한 노상경(2008)조사에도 조부모가 일주일 동안 손자녀를 5~6일동안 양육하는 것이 48.6%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돌보는 시간은 4~8시간이 33%로 많았다.

## 2.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 우울감

부모가 인지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의 반복으로 양육자 어려움을 지각하는 정서이다(안지영, 2001). 이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적용하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조부모가 자각하게 되는 부담 및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김은정, 2012).

손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조부모는 가족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본인이 가족 내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하게 된다. 이로인해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다(Wheelock & Jones, 2002). 그러나, 노년기때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에게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최해경, 2002; 박충선, 2010).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떤 가정에서나 경험하고 있지만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의 경우에는 중년기에 양육을 다시 경험함에 따라 젊은 부모들 보다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이미영, 2008). 보편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나이가 많으면 손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보고가 있는데(박충선, 2010; Lemme, 2002), 나이가 많

아질수록 건강이 약해지며 이로 인해 손자와 손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심리적 영향의 대표적인 증상이 우울이라고 볼수 있다(Kelley et al.,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와 심리적 문제,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령이 낮은 조부모가 우울이 심하며(백경숙·김영란, 2006), 건강상태가 나쁜 조부모가 우울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김혜선, 2005; 배진희, 2007). 또한 사회적 지치 측면에서는 친척이나 친구를 자주 방문하는지, 친한 사람이 있는지 등이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의 우울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김정은, 2002). 그러나 손자녀의 양육기간에 따른 우울감에 대한 연구는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다. 양육기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도 있지만(백경숙·김영란, 2006),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가 손자녀와 애착을 형성하여 노년기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Goodfellow·Laverty, 2003)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개인적 측면, 가구적 측면을 고려하여 손자녀의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한다.

### 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 삶의만족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선행연구를 보면, 과거에는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았다. 연구결과는 조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하게 역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권경숙, 2008; 오진아, 2006; 김윤숙·조희숙, 2012). 그러나 최근에는 손자녀의 양육이 조부모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연구들도 나타난다. 그 예로써,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들과 관계가 활발해지며 또한 조부모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김은정, 2012). 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김문정, 2009).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조윤주, 2012). 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면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클 수 있다. 손자녀를 돌봐 주는 것이 본인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손자녀의 양육이 다양하게 조부모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들이 보고되었다(Dolbin-MacNab, 2006).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명희(2012)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50대의 조모의 삶의 만족 수준이 60대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았으며,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교육수준과의 관계는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조모의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적인 측면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기남, 2004; 김미령, 2014), 전체 연령대에 걸쳐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보였다(강상경, 2012). 또한 취업한 자녀 대신 손자녀를 양육한 조모 대상으로 구조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은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김문정, 2009).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2-6차(2008년-2016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주관하에 2006년부터 격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6회까지 실시되었다. 이는 고령화 진행에 따라 횡단면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등 삶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료다. 이는 정부의 중고령층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1961년 이전)이며,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가구를 방문하여 컴퓨터로 면접을 시행하였다. KLoSA의 내용은 가족, 자산, 고용, 인구, 건강, 소득과 소비,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사망자 설문내용이다. 패널 대상자가 사망 할 경우 다른 가족등을 대상으로 사망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패널조사 1차 기본조사는 2006년 8월 ~ 12월 까지 5개월 가량 진행 하였으며, 1차(2006년)는 6,171가구의 10,254명이 패널로 되어 2차(2008년) 8,688명, 3차(2010년) 7,920명, 4차(2012년) 7,486명, 5차(2014년)에는 신규 패널이 일부 추가되어 7,949명, 6차(2016년) 7,490명이 조사되었다. 고령화연구패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원자료, 구조변환자료, 라이트버전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구조변환자료는 설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원자료에 분석이 용이하도록 추가 변수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울척도와 관련하여 원자료에서는 10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별로 제공하고 있으나, 구조변환자료에서는 설문 10 가지를 가지고 기준에 따라 '1'과 '0'으로 값을 부여한 다음, 모두 합산한 별도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 중 구조변환자료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표본으로 주요변수인 손자녀 돌봄여부, 우울, 삶의만족도 등의 변수 뿐만 아니라,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조사를 제외하고 2~6차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손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질문이 1차 조사 이후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2차 조사 이후부터는 10세 미만 손자녀의 돌봄 여부를 확인하지만, 1차 조사는 손자녀 나이와 무관하게, 단순히 손자녀 돌봄 여부만을 묻는다. 1차 조사를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일관성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6차(2008년~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추가로, 우울척도 측정 설문지가 동일한 3개 차수(2~4차, 2008년~2012년)자료를 통하여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손자녀가 있다고 답한 51세~80세의 조부모<sup>7)</sup>이며, 최종 분석대상은 다음과 같다(표1).

**표 1. 연도별 연구대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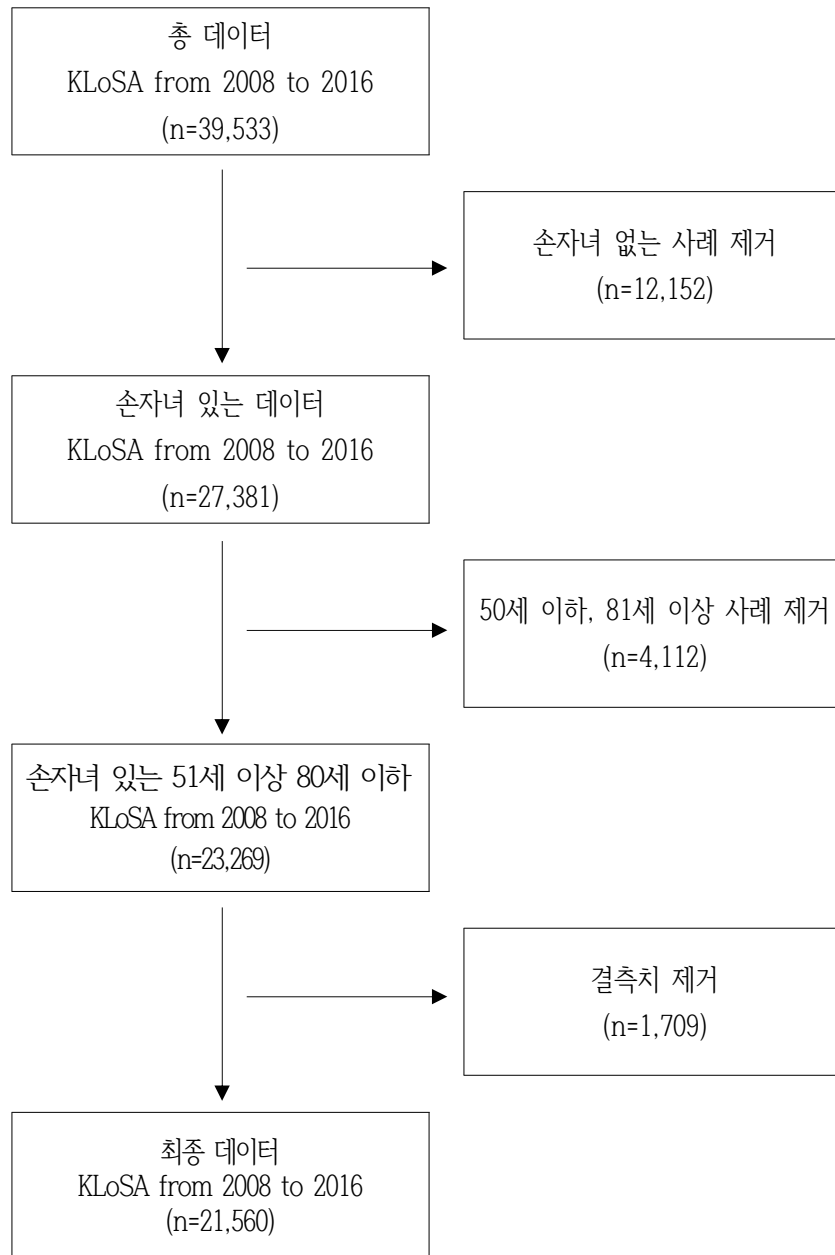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차	3차	4차	5차	6차	Total
원 데이터	8,688 (21.98)	7,920 (20.03)	7,486 (18.94)	7,949 (20.11)	7,490 (18.95)	39,533 (100.0)
1단계 추출 : 손자녀 있음	5,682 (20.75)	5,512 (20.13)	5,425 (19.81)	5,365 (19.59)	5,397 (19.71)	27,381 (100.0)
2단계 추출 : 연령 51~80세	5,020 (21.57)	4,822 (20.72)	4,658 (20.02)	4,521 (19.43)	4,248 (18.26)	23,269 (100.0)
3단계 추출 : 결측치 제거	4,545 (21.08)	4,429 (20.54)	4,360 (20.22)	4,277 (19.84)	3,949 (18.32)	21,560 (100.0)

7) 50세 이하, 81세 이상의 응답자는 10세 미만의 손자가 있더라도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선행연구에서도 해당 사유로 인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연구대상

그림 1. Flow chart of study population selection





#### 4. 변수의 선정 및 정의

가. 종속변수: 우울과 삶의 만족도

##### 1) 우울척도

KLoSA에서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인 CESD-10으로 우울감이 측정되었다. 고령화연구패널의 1~4차 우울증 척도 10문항은 한국판 CES-D 20 중 10개의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Anderson form), 5~6차 이후는 CES-D 10(Boston form)으로 노인·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미국 CES-D 20 문항 중 축약·변한 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CES-D10이다. 해당 질문은 모두 1~4까지의 값을 가지며, 기준에 따라 이를 '1'과 '0'의 값을 부여한 다음, 모두 합산한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 값은 0에서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진다. 세부 우울증 문항은 아래와 같다(표3).

표 2. 우울척도 문항, CES-D10

1~4차 (Anderson form)	5~6차(Boston form)
1.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귀찮고 괴롭게 느껴졌다.	1.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2.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었다.	2. 마음이 슬펐다.
3. 우울하다고 생각했다.	3. 많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역코딩).	5.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한다(역코딩).
6.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꼈다.	6.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7.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7.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역코딩).	8.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역코딩).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10. 도무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0. 도무지 무얼 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전반적 삶의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 정도에 따라 0~100점 사이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0점, 만족하면 100점을 부과하여 측정한다.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삶의 만족’은 어느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주관적 평가 결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이경민, 2015; 김수연, 2014; 박순미, 2011)에서 단일문항으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단일문항을 통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 나. 독립변수: 손자녀 돌봄 관련 요인

#### 1) 손자녀 돌봄 여부

독립변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 중에 직접 돌봐주신 10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것을 각각 ‘1’과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2) 돌봄 손자녀 수

‘지난 1년 중에 직접 돌봐주신 10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패널에 대하여 ‘그렇다면 지난 1년 중에 총 몇 명의 손자녀를 직접 돌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응답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 3) 손자녀 돌봄 시간

돌봄 손자녀 수에 응답을 한 패널은 지난 1년 동안 돌본 손자녀의 숫자만큼 ‘지난 1년 중 손자녀를 돌보아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단위:주)’ 와 ‘지난 1년 중에 해당 손자녀를 돌보는 데 소요하신 시간은 평균 주당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단위: 주당 평균시간)’ 라는 두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각 손자녀별 두 문항의 곱셈 값을 모두 합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다.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조부모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 특성들로 구성하였다. 주요 변수 설명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 1) 개인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지위,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여부, 만성질환 수, 종교를 포함한다.

#### 2) 가구 특성

손자녀수, 성인 자녀와의 동거자녀수, 가구소득수준, 성인자녀로부터 지원, 성인자녀에게 지원, 거주지역, 거주형태가 포함된다.

**표 3. 주요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측정
종속 변수	우울수준	CES-D : 0-1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삶의 만족도	: 0-100점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독립 변수	손자녀 양육여부	양육=1, 비양육=0
	돌봄손자녀수	지난 1년 중 돌본 10세 미만의 손자녀수
	손자녀 양육시간	$\sum_{n=1}^4$ 돌봄시간/주(n번째 손자녀) × 돌봄기간(n번째 손자녀)
	성별	여성=1, 남성=0
	연령	단위(세)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ref.),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졸 이상
	결혼지위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이혼, 사별, 미혼, 기타)=0
	경제활동상태	취업=1, 미취업=0
개인 특성	개인소득	1,000만원 미만(ref.),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주관적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1-5점을 가지며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도록 조사되어 역코딩
통제 변수	만성질환 수	만성질환 수 0-7
	운동여부	‘평소에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십니까’ (예=1, 아니오=0)
	종교활동	참여하고 있는 종교모임 여부: 예=1, 아니오=0
가구 특성	가구소득	1,000만원 미만(ref.),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손자녀수	손자녀수: 0~50명(사망, 실종자 포함)
	동거자녀 수	첫 번째 자녀 동거여부(예=1, 아니오=0)부터 아홉 번째 자녀 동거여부 변수의 합
	from.자녀지원	성인(동거/비동거 포함)자녀로부터 받은 금전 총액
	to. 자녀지원	성인(동거/비동거 포함)자녀에게 지원한 금전 총액
	거주지역	대도시(서울, 광역시)=1, 기타=0
	주거형태	자가=1, 비자가=0(전세, 월세, 기타)

## 5.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2차~6차(2008년~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혼합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4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t검증과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차수별 범주형 변수에 대한 빈도 차이 분석 및 연속형 변수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에 따라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합효과모형을 실시하였다.

넷째,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나눠 하위군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층(중년기: 65세미만, 노년층: 65세이상)에 따라 나누어 하위군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 2차-6차 자료(2008년-2016년)를 사용하였으며, 손자녀 양육여부로 나눠서 연구1차 데이터(2008년)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표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자는 손자녀가 있는 51세~80세 조부모 대상이며, 그중 ‘지난 1년 중에 직접 돌봐주신 10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한 관측치 217개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관측치 4,328개, 총 4,545개의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CES-D로 평가하는 우울지수는 양육자가 3.27로 비양육자 4.13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4.15$ ,  $p<.001$ ). 삶의 만족도는 손자녀 양육자가 평균 61.15로 비양육자 평균 59.57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손자녀 양육집단과 비양육자 집단에서 조모가 각각 76.04%, 57.53%로 조부보다 비율이 높았다. 또한, 조부모 중 여성은 76.04%로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부모 중 여성 비율인 57.53% 대비 18.51%p 높아 주로 조모가 양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집단이 비양육 집단에 비해 4.18세 적어 상대적으로 젊은 조부모들이 양육에 적극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t=8.47$ ,  $p<.001$ ). 또한, 배우자 유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양육집단의 유배우자 비율이 비양육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성별과 함께 연결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 만족도 및 운동하는 비율은 손자녀 양육자 집단이 약간 높으며,

만성질환은 비양육자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가 각각 78.34%, 77.3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X^2=12.41$ ,  $p<.001$ )와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양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2=17.47$ ,  $p<.001$ ).

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응답자의 개인소득은 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가구 소득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양육집단에서는 36.87%로 비양육집단의 20.64% 대비 16.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X^2=41.30$ ,  $p<.001$ ).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에서 양육집단(58.86%)이 비양육집단(34.36%) 대비 높은 것으로 볼 때, 주로 양육집단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과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양육집단이 비양육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보다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손자녀를 양육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고, 연령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으나 성인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공동체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 1차년도(2008년)  
 (n=4,545)

변수	구분	양육=1 (n=217)	비양육=0 (n=4,328)	집단차이 검정 <sup>1</sup>
		빈도(%)/ 평균(표준편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우울감	M(SD) <sup>2</sup>	3.27(2.86)	4.13(2.96)	4.15*** (<.001)
삶의 만족도	M(SD) <sup>2</sup>	61.15(19.13)	59.57(18.90)	-1.20 (.231)
성별	남성	52(23.96)	1,838(42.47)	28.37*** (<.001)
	여성	165(76.04)	2,490(57.53)	
연령(세)	M(SD) <sup>2</sup>	63.36(6.45)	67.54(7.12)	8.47*** (<.001)
손자녀 수(명)	M(SD) <sup>2</sup>	4.47(2.94)	5.43(3.52)	4.64*** (<.001)
주관적 건강만족도	M(SD) <sup>2</sup>	2.18(0.88)	2.14(0.91)	-0.57 (.567)
만성질환	M(SD) <sup>2</sup>	1.12(1.09)	1.13(1.09)	0.19 (.851)
가구소득	1,000만원 미만	54(24.88)	1,596(36.88)	41.30*** (<.001)
	1,000-2,000만원 미만	41(18.89)	1,125(25.99)	
	2,000-3,000만원 미만	42(19.35)	714(16.50)	
	3,000-4,000만원 미만	31(14.29)	411(9.50)	
	4,000만원 이상	49(22.58)	482(11.14)	
개인소득	1,000만원 미만	170(78.34)	3,060(70.70)	7.24 (.124)
	1,000-2,000만원 미만	25(11.52)	745(17.21)	
	2,000-3,000만원 미만	15(6.91)	306(7.07)	
	3,000-4,000만원 미만	3(1.38)	118(2.73)	
	4,000만원 이상	4(1.84)	99(2.29)	
교육수준	중학교졸업 이하	173(79.72)	3,348(77.36)	1.00 (.605)
	고등학교 졸업	32(14.75)	752(17.38)	
	대학교 졸업 이상	12(5.53)	228(5.27)	
배우자 유무	있음	163(75.12)	3,293(76.09)	0.06 (.806)
	없음	54(24.88)	1,035(23.91)	



종교	있음	69(31.80)	327(21.42)	12.41***
	없음	148(68.20)	3,401(78.58)	(<.001)
지역	대도시	114(52.53)	1,650(38.12)	17.47***
	기타	103(47.47)	2,678(61.88)	(<.001)
운동	함	77(35.48)	1,497(34.59)	.039
	안함	140(64.52)	2,831(65.41)	(.844)
경제활동	취업	40(18.43)	1,466(33.87)	21.54***
	미취업	177(81.57)	2,862(66.13)	(<.001)
주택유형	자가	178(82.03)	3,656(84.47)	.760
	자가외	39(17.97)	672(15.53)	(.383)
자녀동거 여부	동거	127(58.53)	1,487(34.36)	51.65***
	비동거	90(41.47)	2,841(65.64)	(<.001)
자녀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	M(SD) <sup>2</sup>	13.84(1.73)	13.04(2.02)	-6.56*** (<.001)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	M(SD) <sup>2</sup>	9.77(1.63)	9.71(1.59)	-.590 (.550)

\* p<.05, \*\*p<.01, \*\*\*p<.001

1. 연속형 변수는 t-test, 범주형 변수는  $\chi^2$ 으로 검정함

2. M : 평균, SD : 표준편차

## 2. 연구 대상자의 차수별 비교

### 가. 연구대상자들의 범주형 변수에 대한 차수별 빈도차이

다음은 아래와 같이 각 차수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5).

성별의 경우 여자는 2차(58.42%), 3차(57.89%), 4차(58.58%), 5차(58.29%), 6차(59.03%)로 여자가 더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2차(76.04%), 3차(76.47%), 4차(77.78%), 5차(78.16%), 6차(79.08%)로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비중이 많았으며, 차수별로는 차수가 거듭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유무와 관련해서 종교가 있는 집단은 2차(21.91%), 3차(19.62%), 4차(21.26%), 5차(17.58%), 6차(17.17%)로 17.17~21.9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차수별로는 해를 거듭함에 따라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2차(38.81%), 3차(38.16%), 4차(39.31%), 5차(39.30%), 6차(40.16%)로 등락을 하면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학력분포를 보면 중졸이하는 2차(77.47%), 3차(75.43%), 4차(72.52%), 5차(69.09%), 6차(64.65%) 등으로 모든 차수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빈도는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졸은 2차(17.25%), 3차(18.56%), 4차(20.92%), 5차(23.80%), 6차(27.96%)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졸이상은 2차(5.28%), 3차(6.01%), 4차(6.56%), 5차(7.11%), 6차(7.39%) 등으로 10% 미만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돌봄손자녀 유무와 관련해서는 돌봄 손자녀가 있는 경우는 2차(4.77%), 3차(4.02%), 4차(3.65%), 5차(1.96%), 6차(1.70%) 등으로 차수가 거듭함에 따라 감소하는 유의하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동여부와 관련은 운동을 하는 경우는 2차(34.63%), 3차(32.56%), 4차(35.92%), 5차(33.83%), 6차(36.01%)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활동(취업)과 관련해서는 취업자는 2차(33.14%), 3차(37.32%), 4차(35.41%), 5차(36.22%), 6차(36.77%) 등으로 3차 시점에 제일 높고,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소득 더미변수를 보면 1,000만원 이하는 2차(71.07%), 3차(68.57%), 4차(66.90%), 5차(62.54%), 6차(62.42%)로 모든 차수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빈도는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소득분포에서는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4,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살펴보면 2차(2.27%), 3차(2.75%),

가구소득 더미변수를 보면 3,000만원 이하인 3개 그룹의 비율 합계는 2차(78.58%), 3차(60.28%), 4차(56.99%), 5차(54.08%), 6차(49.71%)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빈도는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3,000만원 초과하는 가구 비율은 2차(21.42%), 3차(39.72%), 4차(43.01%), 5차(45.92%), 6차(50.29%) 등으로 6차 조사에서는 과반을 넘는 수준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유형에서는 자가유형이 2차(84.36%), 3차(84.90%), 4차(84.63%), 5차(85.34%), 6차(85.59%)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동거여부와 관련해서 동거를 하는 경우는 2차(35.51%), 3차(34.32%), 4차(31.19%), 5차(30.40%), 6차(26.44%)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차수별 특성(범주형)**

(n=21,560)

구분		2차	3차	4차	5차	6차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성별(여성)		2,655 (58.42)	2,564 (57.89)	2,554 (58.58)	2,493 (58.29)	2,331 (59.03)
배우자(있음)		3,456 (76.04)	3,387 (76.47)	3,391 (77.78)	3,343 (78.16)	3,123 (79.08)
종교(있음)		996 (21.91)	869 (19.62)	927 (21.26)	752 (17.58)	678 (17.17)
지역(대도시)		1,764 (38.81)	1,690 (38.16)	1,714 (39.31)	1,681 (39.30)	1,586 (40.16)
학 력	중졸이하	3,521 (77.47)	3,341 (75.43)	3,162 (72.52)	2,955 (69.09)	2,553 (64.65)
	고졸	784 (17.25)	822 (18.56)	912 (20.92)	1,018 (23.80)	1,104 (27.96)
	대졸이상	240 (5.28)	266 (6.01)	286 (6.56)	304 (7.11)	292 (7.39)
돌봄손자녀(있음)		217 (4.77)	178 (4.02)	159 (3.65)	84 (1.96)	67 (1.70)
운동(함)		1,574 (34.63)	1,442 (32.56)	1,566 (35.92)	1,447 (33.83)	1,422 (36.01)
경제활동(취업)		1,506 (33.14)	1,653 (37.32)	1,544 (35.41)	1,549 (36.22)	1,452 (36.77)
개 인 소 득	<1,000만원	3,230 (71.07)	3,037 (68.57)	2,917 (66.90)	2,675 (62.54)	2,465 (62.42)
	<2,000만원	770 (16.94)	805 (18.18)	840 (19.27)	894 (20.90)	780 (19.75)
	<3,000만원	321 (7.06)	313 (7.07)	312 (7.16)	337 (7.88)	327 (20.31)
	<4,000만원	121 (2.66)	152 (3.43)	156 (3.58)	199 (4.65)	200 (5.06)
	≥4,000만원	103 (2.27)	122 (2.75)	135 (3.10)	172 (4.02)	177 (4.48)

가 구 소 득	<1,000만원	1,650 (36.30)	1,466 (33.10)	1,238 (28.39)	1,251 (29.25)	911 (23.07)
	<2,000만원	1,166 (25.65)	1,204 (27.18)	1,247 (28.60)	1,062 (24.83)	1,052 (26.64)
	<3,000만원	756 (16.63)	717 (16.19)	727 (16.67)	686 (16.04)	675 (17.09)
	<4,000만원	442 (9.72)	509 (11.49)	524 (12.02)	550 (12.86)	524 (13.27)
	≥4,000만원	531 (11.68)	533 (12.03)	624 (14.31)	728 (17.02)	787 (19.93)
주택유형(자가)	3,834 (84.36)	3,760 (84.90)	3,690 (84.63)	3,650 (85.34)	3,380 (85.59)	
자녀동거여부(동거)	1,614 (35.51)	1,520 (34.32)	1,360 (31.19)	1,300 (30.40)	1,044 (26.44)	

\*빈도(백분율)

## 나. 연구대상자들의 연속형 변수에 대한 차수별 평균차이

다음은 아래와 같이 분석대상 변수 중 연속변수의 특징을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 차수별로 평균을 확인하였다(표6).

연령은 2차(M=67.34), 3차(M=67.82), 4차(M=68.19), 5차(M=68.76), 6차(M=69.67)로 차수가 경과 할수록 증가하였다. 손자녀 수는 2차(M=5.38), 3차(M=5.23), 4차(M=4.88), 5차(M=4.61), 6차(M=4.26)로 차수가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차수가 경과함에 따라 손자녀수가 많은 관측치들이 무응답, 사망 등으로 탈락함에 따른 효과와, 5차 조사부터 투입된 신규패널의 손자녀수가 평균 2.08명(5차), 1.89명(6차)으로, 기존패널의 손자녀수 평균인 4.89명(5차), 4.74명(6차)과 큰 폭으로 차이가 있음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돌봄손자녀수 또한 2차(M=.07), 3차(M=.06), 4차(M=.05), 5차(M=.03), 6차(M=.02)와 같이 차수가 경과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2차(M=2.14), 3차(M=2.16), 4차(M=2.15), 5차(M=2.17), 6차(M=2.23)와 같이 차수가 경과할수록 증가하였고 우울정도는 2차(M=4.09), 3차(M=3.97), 4차(M=3.65), 5차(M=3.23), 6차(M=2.71)와 같이 차수가 경과할수록 우울정도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2차(M=59.65), 3차(M=60.26), 4차(M=59.54), 5차(M=60.24), 6차(M=62.86)와 같이 차수가 경과하면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동거자녀수는 2차(M=.41), 3차(M=.40), 4차(M=.36), 5차(M=.35), 6차(M=.31)와 같이 차수가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고 자녀로부터 받은 지원금액(로그변환)은 2차(M=13.08), 3차(M=13.08), 4차(M=13.27), 5차(M=13.24), 6차(M=13.06)와 같이 4차년도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로그변환)은 2차(M=9.71), 3차(M=9.66), 4차(M=9.69), 5차(M=9.82), 6차(M=9.80)으로 5차년도와 6차년도가 그 이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시간은 주당 평균돌봄시간에 돌봄기간 주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2차(M=114.88), 3차(M=28.21), 4차(M=89.51), 5차(M=41.02), 6차(M=38.31)로 확인된다. 실제로 돌봄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측치를 제거한 돌봄시간을 살펴볼 경우, 2차(M=2406.21), 3차(M=766.60), 4차(M=2454.55), 5차(M=2088.55), 6차(M=2258.24)로, 2차, 4차, 5차, 6차 데이터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3차 시점이 타 차수에 비하여 확연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시간 산정에 사용된 연간 돌봄기간(단위:주, 4명의 손자녀까지 개별 조사) 변수 합계의 평균은 3차를 제외할 경우 58.012에서 67.318까지의 분포를 보이나, 3차 자료의 경우는 19.601로 타 차수와 차이가 크게 벌어졌으며, 입력치 최대값 또한 3차를 제외할 경우 120에서 208까지의 분포를 보이나, 3차 자료의 경우에는 57로 나타나, 3차 자료의 입력값 자체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후 분석에서는 돌봄시간 변수는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차수별 특성(연속형)**

(n=21,560)

구분	2차 (2008년)	3차 (2010년)	4차 (2012년)	5차 (2014년)	6차 (2016년)
연령	67.34 (7.144)	67.82 (7.139)	68.19 (7.062)	68.76 (7.184)	69.67 (6.799)
손자녀수	5.38 (3.498)	5.23 (3.442)	4.88 (3.215)	4.61 (3.074)	4.26 (2.813)
돌봄 손자녀수	.07 (.343)	.06 (.317)	.05 (.284)	.03 (.206)	.02 (.186)
주관적 건강만족도	2.14 (.909)	2.16 (.880)	2.15 (.855)	2.17 (.850)	2.23 (.843)
우울정도	4.09 (2.967)	3.97 (3.032)	3.65 (2.945)	3.23 (2.746)	2.71 (2.668)
삶의만족도	59.65 (18.913)	60.26 (17.989)	59.54 (16.979)	60.24 (16.673)	62.86 (15.386)
동거자녀수	.41 (.613)	.40 (.608)	.36 (.577)	.35 (.571)	.31 (.560)
자녀도움받은 금액(로그)	13.08 (2.018)	13.08 (2.037)	13.27 (1.916)	13.24 (1.987)	13.06 (2.100)
자녀도움준 금액(로그)	9.71 (1.588)	9.66 (1.516)	9.69 (1.586)	9.82 (1.796)	9.80 (1.788)
돌봄시간1	114.88 (642.503)	28.21 (276.219)	89.51 (610.534)	41.02 (432.996)	38.31 (451.829)
돌봄시간2 (n=690)	2406.21 (1773.52)	766.60 (1231.22)	2454.55 (2107.56)	2088.55 (2308.90)	2258.24 (2668.85)

\* 평균(표준편차)

- 주관적 건강 만족도는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도록 리코딩 함
- 돌봄시간1은 전체 대상자이며, 돌봄시간2는 돌봄시간을 1시간 이상 하는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표 7. 연차별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기간 변수 평균 차이

(n=690)

차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차(2008년)	217	67.318	35.486	1	208
3차(2010년)	163	19.601	22.491	1	57
4차(2012년)	159	63.711	29.220	6	156
5차(2014년)	84	58.012	28.375	1	120
6차(2016년)	67	62.343	33.589	2	156

- 평균: 주(week) 단위

### 3. 손자녀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가. 손자녀양육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삶의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2차~6차 반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혼합 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8).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변수는 손자녀 돌봄여부, 돌봄 손자녀수 2가지가 있으며, 이들 2가지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에는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차~6차 데이터로 분석한 Model1에서는 손자녀 돌봄여부, Model2에서는 돌봄손자녀수를 각각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8>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손자녀 여부를 단일 독립변수로 투입한 Model1에서는 손자녀 돌봄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B=59.489,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손자녀수를 단일 독립변수로 투입한 Model2에서 돌봄손자녀수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B=59.485,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노인의 삶의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odel3에서는 손자녀돌봄 여부를 손자녀돌봄 관련 대표변수로 투입하고, 개인적 특성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추가 투입된 변수 중에서 성별(여자)( $B=2.442, p<.001$ ), 학력더미변수 중 고졸( $B=1.433, p<.001$ ) 및 대졸( $B=2.813, p<.001$ )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만족도가 높고, 학력은 중졸이하 집단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배우자 있음 더미변수 ( $B=4.294, p<.001$ ), 경제활동(취직) 더미변수( $B=1.507, p<.001$ )는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으며, 취업을 한 경우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소득 더미변수를 살펴보면 2.000만원 미만 ( $B=2.713, p<.001$ ), 3.000만원 미만 ( $B=5.401, p<.001$ ) 4.000만원 미만 ( $B=6.747, p<.001$ ) 4,000만원 이상( $B=7.461, p<.001$ )이다. 이는 개인소득이 많은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만족도( $B=4.961, p<.001$ ), 종교유무(종교있음) 더미변수( $B=1.831, p<.001$ ), 만성질환수 ( $B=-.761, p<.001$ )는 유의적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가 있는 집단의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만성질환수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Model4에서는 Model3에 가구특성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개인특성변수에 있어서는 Model3에서와 달리 연령변수( $B=-.086, p<.001$ )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특성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추가된 변수 중에서 가구소득 더미변수는 2.000만원 미만 ( $B=2.571, p<.001$ ), 3.000만원 미만 ( $B=4.692, p<.001$ ) 4.000만원 미만 ( $B=5.612, p<.001$ ) 4,000만원 이상 ( $B=6.207, p<.001$ )이다. 이는 가구소득이 많은 집단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손자수 ( $B=.155, p<.001$ ), 동거자녀 ( $B=-2.255, p<.001$ ) 등으로 손자수는 많을수록, 동거자녀수는 적을수록 노인의 삶의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와 관련해서 자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규모(로그)는 ( $B=.603, p<.001$ )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금전규모(로그)는 ( $B=.084, p=.199$ )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나,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

을 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규모 더미 변수 중 대도시는 ( $B=-1.39$ ,  $p<.001$ ), 주거유형에서 자가보유자는 ( $B=7.919$ ,  $p<.001$ )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의 삶의만족도가 낮으며, 자가보유자의 삶의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수별 더미변수를 보면 기준년도 1차(2008년)에 비해 2차년도는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차(2012년)는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6년차 데이터)

(n=21,560)

구 분	Model1		Model2		Model3		Model4	
	B	S.E.	B	S.E.	B	S.E.	B	S.E.
Intercept	59.489**	.258	59.511***	.258	44.228***	1.473	33.032***	1.826
돌봄손자녀여부	3.388***	.663			1.868**	.607	1.230*	.591
돌봄손자녀수			1.954***	.426				
성별(여자)					2.442***	.264	1.161***	.262
연령					-.018	.018	-.086***	.021
학력(고졸) <sup>1)</sup>					1.433***	.285	1.42***	.280
학력(대졸) <sup>1)</sup>					2.813***	.480	2.633***	.472
배우자(있음)					4.294***	.282	2.561***	.281
경제활동(취직)					1.507***	.266	1.476***	.263
개 <sup>2)</sup> <2,000만원					2.713***	.305	1.579***	.308
인 <3,000만원					5.401***	.442	2.782***	.449
소 <4,000만원					6.747***	.596	3.762***	.604
득 ≥4,000만원					7.461***	.656	4.110***	.677
주관적만족도					4.965***	.141	4.428***	.138
운동여부(운동함)					4.696***	.236	4.315***	.230
종교여부(있음)					1.831***	.274	2.331***	.266
만성질환수					-.761***	.102	-.659***	.099

가 <sup>3)</sup>	<2,000만원							2.571***	.299
구	<3,000만원							4.692***	.359
소	<4,000만원							5.612***	.416
득	≥4,000만원							6.207***	.425
손자수								.155***	.041
동거자녀수								-2.255***	.206
자녀도움받은 금액(로그)								.603***	.055
자녀도움준 금액(로그)								.084	.066
도시(대도시)								-1.391***	.221
주거유형(자가)								7.919***	.300
2010년(2차) <sup>4)</sup>	.640	.375	.637	.365	.542	.331	.439	.321	
2012년(3차) <sup>4)</sup>	-.071	.366	-.069	.366	-.451	.333	-.819	.326	
2014년(4차) <sup>4)</sup>	.686	.368	.677	.368	.708	.338	-.238	.332	
2016년(5차) <sup>4)</sup>	3.313***	.376	3.304***	.376	2.153***	.349	1.730***	.349	

- 주관적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 reference group: 1) 학력: 중졸 이하, 2) 개인소득: 1천만원 미만 3)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4) 조사차수: 2008년(1차)

\*p<.05, \*\*p<.01, \*\*\*p<.001

## 나.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우울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2~6차의 반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혼합 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9).

손자녀 돌봄과 관련된 변수는 손자녀 돌봄여부, 돌봄 손자녀수, 2가지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에는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차~6차 데이터로 분석한 Model1에서는 손자녀 돌봄여부, Model2에서는 돌봄 손자녀수를 각각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손자녀 여부를 단일 독립변수로 투입한 Model1에서 돌봄손자녀 여부는 ( $B=-.775, p<.001$ ), 돌봄손자녀수를 단일 독립변수로 투입한 Model2에서 돌봄손자녀수는 ( $B=-.526, p<.001$ ), 등으로 모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행위 자체가 노인의 우울정도를 떨어뜨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odel4에서는 손자녀돌봄 여부를 손자녀돌봄 관련 대표변수로 투입하고, 개인적 특성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추가 투입된 변수 중에서 성별(여자)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은 ( $B=.016, p<.001$ ), 학력더미변수 중 고졸은 ( $B=-.195, p<.001$ ), 대졸은 ( $B=-.359, p<.001$ )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학력은 중졸이하 집단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배우자 있음 더미변수( $B=-.587, p<.001$ ), 경제활동(취직) 더미변수( $B=-.561, p<.001$ ), 주관적 건강만족도( $B=-.676, p<.001$ ), 종교유무(종교있음) 더미변수( $B=-.304, p<.001$ ), 만성질환수( $B=.182, p<.001$ )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있으며, 취업을 한 경우의 우울정도는 낮고, 주관적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종교가 있는 집단의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우울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만성

질환수가 적을수록 우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Model4에서는 Model3에 가구특성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추가된 변수 중에서 가구소득의 증가가 유의적으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으며( $B=.015, p<.001$ ), 동거자녀수( $B=.149, p<.001$ )로 동거자녀수는 많을수록 노인의 우울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손자수에 따른 우울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와 관련하여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규모(로그)는( $B=-.055, p<.001$ )으로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금전규모 우울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B=-.284, p<.001$ ), 주거유형에서 자가보유자는( $B=-.387, p<.001$ )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의 우울정도가 낮고, 자가보유자의 우울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3개 차수(2차~4차, 2008년~2012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부록).



**표 9.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2-6년차 데이터)**

(n=21,560)

구 분	Model1		Model2		Model3		Model4	
	B	S.E.	B	S.E.	B	S.E.	B	S.E.
Intercept	4.123***	.043	4.123***	.046	5.270***	.251	6.314***	.320
돌봄손자녀여부	-.775***	.110			-.599***	.103	-.541***	.104
돌봄손자녀수			-.526***	.071				
성별(여자)					.035	.045	.085	.046
연령					.016***	.003	.015***	.004
학력(고졸) <sup>1)</sup>					-.195***	.049	-.162**	.049
학력(대졸) <sup>1)</sup>					-.359***	.082	-.315**	.083
배우자(있음)					-.587***	.048	-.509***	.049
경제활동(취직)					-.561***	.045	-.634***	.046
개 <sup>2)</sup> <2,000만원					-.268***	.052	-.187**	.054
인 <3,000만원					-.331***	.075	-.180*	.079
소 <4,000만원					-.514***	.102	-.382**	.106
득 ≥4,000만원					-.227*	.112	-.147	.119
주관적만족도					-.676***	.024	-.645***	.024
운동여부(운동함)					-.454***	.040	-.404***	.040
종교여부(있음)					-.304***	.047	-.300***	.047
만성질환수					.182***	.017	.180***	.017



#### 다.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조부와 조모 각각을 대상으로 우울과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조부와 조모 모두에게 손자녀 양육이 우울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10). 그러나 삶의 만족도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경우 삶의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나 ( $B=1.429, p<.05$ ) 조부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라.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중년기 조부모와 노년기 조부모<sup>8)</sup>로 나누어 우울과 삶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11).

먼저 우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년기 조부모와 노년기 조부모 모두에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만족도의 경우는 중년기 조부모에게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노년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8) Levinson(1996)의 생애단계 이론 및 국내 노인복지정책 대상자 구분에 근거하여 중년기와 노년기를 6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표 10.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별구분)**

(n=21,560)

구 분	우울				삶의만족도			
	조부(n=8,963)		조모(n=12,597)		조부(n=8,963)		조모(n=12,597)	
	B	S.E.	B	S.E.	B	S.E.	B	S.E.
Intercept	6.226***	.495	6.408***	.406	34.395***	2.821	32.907***	2.321
돌봄손자녀여부	-.470*	.184	-.553***	.126	.280	1.049	1.429*	.719
연령	.019**	.006	.013**	.005	-.099**	.034	-.079**	.027
학력(고졸) <sup>1)</sup>	-.190**	.065	-.110	.074	1.395***	.372	1.418***	.424
학력(대졸) <sup>1)</sup>	-.405***	.097	-.102	.167	3.246***	.552	1.786	.956
배우자(있음)	-.731***	.113	-.425***	.056	4.135***	.646	2.203***	.322
경제활동(취직)	-.722***	.069	-.574***	.062	2.808***	.393	.507	.356
개 <sup>2)</sup> <2,000만원	-.313***	.080	-.126	.075	1.524***	.459	1.525***	.426
인 <3,000만원	-.438***	.104	-.022	.135	2.553***	.592	3.863***	.773
소 <4,000만원	-.649***	.134	-.218	.199	4.284***	.764	2.920*	1.139
득 ≥4,000만원	-.331**	.150	-.238	.247	4.363***	.856	4.165**	1.414
주관적만족도	-.668***	.037	-.619***	.032	4.433***	.212	4.367***	.182
운동여부(운동함)	-.437***	.061	-.372***	.054	4.320***	.345	4.337***	.309
종교여부(있음)	-.368***	.082	-.272***	.057	2.534***	.466	2.161***	.325

만성질환수	.082**	.026	.252***	.023	-.222	.150	-.970***	.132
가 <sup>3)</sup> <2,000만원	.108	.086	-.257***	.067	2.084***	.488	2.775***	.382
구 <3,000만원	.161	.102	-.502***	.081	3.612***	.580	5.362***	.464
소 <4,000만원	.133	.118	-.546***	.094	4.216***	.674	6.357***	.536
득 ≥4,000만원	.224	.125	-.406***	.094	4.511***	.711	7.075***	.539
손자수	.002	.012	.019*	.009	.194**	.066	.131*	.052
동거자녀수	.129*	.054	.165***	.048	-1.62***	.311	-2.765***	.276
자녀도움받은 금액(로그)	-.056***	.014	-.051***	.013	.444***	.080	.719***	.075
자녀도움준 금액(로그)	-.001	.017	-.003	.016	.040	.094	.097	.092
도시(대도시)	-.315***	.059	-.263***	.051	-1.591***	.338	-1.281***	.291
주거유형(자가)	-.348***	.084	-.382***	.068	7.574***	.478	8.005***	.386
2010년(2차) <sup>4)</sup>	.004	.086	-.172*	.074	.241	.489	.591	.425
2012년(3차) <sup>4)</sup>	-.257**	.087	-.488***	.075	-.623	.498	-.918*	.430
2014년(4차) <sup>4)</sup>	-.620***	.089	-.955***	.077	-.109	.506	-.301	.440
2016년(5차) <sup>4)</sup>	-1.12***	.094	-1.399***	.080	1.617**	.534	1.848***	.460

- 주관적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 reference group: 1) 학력: 중졸 이하, 2) 개인소득: 1천만원 미만 3)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4) 조사차수: 2008년(1차)

\*p<.05, \*\*p<.01, \*\*\*p<.001

**표 1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령구분)**

(n=21,560)

구 분	우울				삶의만족도			
	중년기(n=6,634)		노년기(n=14,926)		중년기(n=6,634)		노년기(n=14,926)	
	B	S.E.	B	S.E.	B	S.E.	B	S.E.
Intercept	6.17***	.326	7.544***	.260	33.565***	1.811	25.11***	1.500
돌봄손자녀여부	-.526***	.135	-.636***	.158	1.635*	.747	1.004	.910
성별(여자)	-.009	.082	.065	.054	1.203**	.453	1.370***	.312
학력(고졸) <sup>1)</sup>	-.247**	.076	-.110	.064	1.356**	.424	1.334***	.371
학력(대졸) <sup>1)</sup>	-.181	.143	-.368***	.101	2.559**	.796	2.314***	.585
배우자(있음)	-.641***	.105	-.489***	.056	4.417***	.582	2.143***	.322
경제활동(취직)	-.523***	.076	-.736***	.057	.532	.424	2.103***	.329
개 <sup>2)</sup> <2,000만원	-.248**	.089	-.141*	.068	1.277*	.496	1.595***	.390
인 <3,000만원	-.316*	.123	-.105	.103	2.041**	.683	3.233***	.594
소 <4,000만원	-.367*	.150	-.460**	.151	2.823***	.835	4.537***	.871
득 ≥4,000만원	-.450**	.161	.110	.180	5.057***	.894	2.536*	1.04
주관적만족도	-.451***	.043	-.732***	.029	3.719***	.237	4.729***	.169
운동여부(운동함)	-.256***	.068	-.469***	.050	3.544***	.379	4.654***	.287
종교여부(있음)	-.434***	.080	-.236***	.057	2.009***	.447	2.455***	.328

만성질환수	.186***	.034	.180***	.020	-.669***	.191	-.678***	.116
가 <sup>3)</sup> <2,000만원	.006	.116	-.186**	.060	3.415***	.645	2.480***	.348
구 <3,000만원	-.120	.124	-.362***	.077	4.851***	.687	5.129***	.445
소 <4,000만원	-.319*	.134	-.312***	.093	5.769***	.741	6.261***	.535
득 ≥4,000만원	-.028	.136	-.347***	.096	6.714***	.755	6.640***	.553
손자수	.058**	.018	.017*	.007	-.076	.102	.103*	.042
동거자녀수	.078	.052	.222***	.050	-1.177***	.288	-3.21***	.287
자녀도움받은 금액(로그)	-.010	.016	-.072***	.012	.352***	.090	.702***	.069
자녀도움준 금액(로그)	-.025	.015	.030	.018	.063	.081	.068	.105
도시(대도시)	-.259***	.066	-.292***	.047	-1.021**	.369	-1.608***	.273
주거유형(자가)	-.300**	.093	-.402***	.064	6.305***	.516	8.451***	.368
2010년(2차) <sup>4)</sup>	-.007	.093	-.137	.070	.141	.517	.568	.404
2012년(3차) <sup>4)</sup>	-.402***	.095	-.359***	.070	-.766	.530	-.966*	.406
2014년(4차) <sup>4)</sup>	-.632***	.100	-.842***	.071	-.681	.555	-.319	.408
2016년(5차) <sup>4)</sup>	-.960***	.109	-1.332***	.072	.678	.603	1.712***	.417

- 주관적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 reference group: 1) 학력: 중졸 이하, 2) 개인소득: 1천만원 미만 3) 가구소득: 1천만원 미만, 4) 조사차수: 2008년(1차)

\*p<.05, \*\*p<.01, \*\*\*p<.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 비율 증가와 함께 양육지원으로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2-6차(2008년~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51세~80세의 조부모를 대상으로 결측치를 제거하여 총 21,560개의 관측치를 분석하였다. 손자녀의 돌봄 및 양육이 조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단위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5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2-6차년 데이터, 2-4차년 데이터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이점을 보인다. 우울척도의 측정방법이 동일하게 유지된 3개 차수(2~4차, 2008년~2012년)자료 분석 결과와 우울척도 측정이 변경된 차수(5~6차, 2014년~2016년) 자료를 포함한 2~6차(2008년~2016년) 자료 분석 결과 모두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우울감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척도의 측정방법의 변경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대한 결론과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손자녀 돌봄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집단차이 검증 결과로 알아본 일반적 특성으로는 우울지수에 있어서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종합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고 연령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으나 성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 공동체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대도시  
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삶의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상대  
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B=3.388, p<.001$ ), 우울감은 낮은( $B=-.775, p<.001$ )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손자녀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B=1.954,$   
 $p<.001$ ), 우울감은 낮은( $B=-.526, p<.001$ )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손자녀 양육이 미치는 영향은 조부모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달랐다.  
조부 및 조모는 손자녀 양육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조모의 경우에만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에 따라서는 중년기 및 노년기 모두 손자녀 양육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삶의만족도 측면에서는 중년기 조부모에게만 긍정적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 조부모에게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년기보다는 중년기 조부모들에게 있어 상  
대적으로 적기의 경험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최  
근 보도자료에서는 손자녀 돌봄으로 인해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 가  
능성 적고 손자녀를 돌보며 체력적인 한계와 스트레스, 심장질환 등 신체적 질  
환이나 우울증 발생과 같은 부정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및 맞벌이 비율이 늘어나면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주관적 만족감이 높  
고, 소득이 높을수록 보다 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조부모의 주관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법  
적근거가 담긴 법안을 발의 했으며, 더불어 일부지역에서는 돌봄수당을 제공하

고 있다. 이런 경제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이득으로 조부모의 부담감을 조금은 감소시켜 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심리적 보상감도 강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갈등 등을 경감하기 위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건강상태도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의 프로그램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제 제공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조부모들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각 대상자의 손자녀 돌봄 여부의 전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으므로, 연구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특성이 교란변수로 작용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가구변수를 통제하여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부모의 자녀의 특성(조부모의 성인자녀) 및 손자녀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고령화 패널조사자료’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순히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여부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므로, 손자녀 양육 시 타 양육기관의 활용, 도우미 등 사적 양육 보조 서비스 이용, 전반적인 양육 강도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활용된 조사에서 해당 변수들을 조사되지 않았음에 기인한다. 특히, 양육 강도와 관련하여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던 손자녀 돌봄시간을 독립변수로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기초 데이터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등에 따라 조부모의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우울수준 외에 임상적인 증상 및 진단수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상경(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붐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한국복지연구, 43(4), 91-119.

김문정(2009).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령, 2014.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6(1), 178-204.

김미혜.성기옥.팽경희.최희진.최소영(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4), 905-923.

김수연(2014). 은퇴 후 여가생활이 은퇴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가족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정(2012). 맞벌이가정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조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부 및 자녀관계,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7(2), 25-48.

김은정(2012).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보상감 및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2(3), 851-867.

김지현(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선(2005). 농촌과 도시지역 손자녀를 전담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 341-378.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차이. 한국노년학회, 24(3), 13-29.

박순미·손지아·배성우(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 :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1-24.

박순미(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충선(2010). 조손가정의 형성원인과 양육경험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5-125

배지희·노상경·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백경숙·김영란(2006). 손자녀 양육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3), 109-128.

신유미(2017).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9(4), 153-176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진아(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원서진(201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3세대 가족과 비3세대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3-56.

이경민(2012). 은퇴 중·고령자의 비경제적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영(2008).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4,  
327-353.

전은미, 고선강(2016). 손자녀 양육효능감과 양육어려움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69-83

전연우·김윤숙·조희숙(2012). 손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외할머니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175-199.

전혜정 · 조규영 · 박민경 · 황세황 · Wassel, J. I. "손자녀 양육자로의 전이가 조부모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3), 515-536

조운주. 2012. "손자녀양육참여노인의활동만족도에관한연구: 노인의생성감과 가족지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32(2): 267-294.

최경덕·안태현, 2016. "손자녀 양육이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 도구변수 분  
석법을 활용하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3), 99-128.

최명희(2012).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형(2012).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우울감에 관한연구: 손자녀 돌봄 노동실태와 자  
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해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Dolbin-MacNab, M. L. 2006. "Just Like Raising Your Own? Grandmothers' Perceptions of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Family Relations* 55: 564-575

Goodfellow, J., & Lavery, J. (2003). Grandparents supporting working families. *Family Matters*, 66, 14-19.

Lemme, B.H. (2002). *Development in adulthood*(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Kelley, S, J., Whitley, D., Sipe, T, A., & Yorker, B. C.(2000). Psychologic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the pole of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 Neglect*, 24(3), 311-321.

Pinson-Millburn N, M., Fabian E.S., Schlossberg, N.K. and Plye, M. 1996.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6):548-554.

Wheelock, J., & Jones, K., "'Grandparents are the next best thing': Informal childcare for working parents in urban Britain." *Journal of Social Policy*, 31(03), 2002, pp.441-463.

부록.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2-4년차 데이터)

(n=13,334)

구분	Model1		Model2		Model3		Model4	
	B	SE	B	SE.	B	SE.	B	SE.
Intercept	4.124***	.045	4.125***	.045	5.032***	.323	6.155***	.419
돌봄손자녀여부	-.080***	.129			-.586***	.120	-.526***	.121
돌봄손자녀수			-.543***	.082				
성별(여자)					.109	.059	.168**	.060
연령					.022***	.004	.018***	.005
학력(고졸) <sup>1)</sup>					-.295***	.066	-.240**	.066
학력(대졸) <sup>1)</sup>					-.649***	.110	-.566***	.111
배우자(있음)					-.534***	.062	-.461***	.064
경제활동(취직)					-.633***	.059	-.704***	.060
개 <sup>2)</sup> <2,000만원					-.156*	.069	-.057	.073
인 <3,000만원					-.108	.101	.060	.105
소 <4,000만원					-.243	.143	-.039	.150
득 ≥4,000만원					.079	.159	.309	.170
주관적만족도					-.763***	.031	-.727***	.031
운동여부(운동함)					-.534***	.053	-.484***	.053
종교여부(있음)					-.368***	.059	-.352***	.059
만성질환수					.184***	.023	.180***	.023





= Abstract =

## The Effects of Grandchildren Parenting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Grandparents

### Research Background

The ratio of dual income households is continuously rising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household type in Korea, and the burden of the grandparents regarding parenting is continuously rising due to such influence. Concerning this social phenomenon, the interest in the parenting of the grandparents for their grandchildren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various policies, researches, and press releases are being formed. In a press release on parenting of the grandparents for their grandchildren, both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exist and the same results can be seen in previous studies. Meanwhile,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childcare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solve the low birth rate caused by the burden of childcare, and there are also projects to support grandchildren's care for their grandpare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ill be needed. Especially, grandparents, who are genuinely burdened with their grandchildren's, is analyzed and is hoped that it becomes the foundation to deduce a social agreement such as direction of the policy for social

phenomenon.

### **Subject and Metho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data from the 2nd to 6th (2008-2016)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The first basic survey of this panel survey was carried out on 10,254 people in 6,171 households in 2006, followed by a follow-up survey of selected subjects every two years. Some new panels were added in the fifth survey (2014). In this study, grandparents aged 51 to 80 who answered that they had grandchildren were among the subjects surveyed. A total of 21,560 observations were made for the grandchildren except for missing values. Whether they cared for their grandchildren, the number of cared grandchildren, personal characteristics, depression level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were examined using the Mixed Effect model.

### **Background Result**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found through verification results of group difference of research targets according to whether they cared for the grandchildren were that the depression index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at of the non-caretaker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Life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higher in the caretaker than in the non-caretaker,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reveals that the group that cares for grandchildren are relatively consists of many women and the age is low. Although they do not do economic activities, they

often live as an economic community while living with their adult children and residence rate in the big cities was relatively high.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the Mixed Effect Model to find out the effect of grandchildren caretaking on the satisfaction of the grandparent's life showed that grandparents who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were found to have relatively high satisfaction in life( $B=3.388$ ,  $p<.001$ ), low depression( $B=-.775$ ,  $p<.001$ ), and the higher the number of grandchildren they cared for,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in life( $B=1.954$ ,  $p<.001$ ), and the lower their depression ( $B=-.526$ ,  $p<.001$ ).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grandchildren care according to sex, grandparents' care of their grandchildren reduced depression, but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only in the case of the grandmother. According to age, grandchildren parenting decreased depression in both middle and old age, but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only middle-aged grandparents had a positive effect.

## **Conclusion**

In recent press releases, there is a view that grandparents' care of their grandchildren is less likely to cause "successful aging" of grandparents, and may cause physical limitations and stres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grandchildren's paren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grandparent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analyze through researches

the effects and influence of grandchildren care, and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policy support such as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and childcare allowances. Especially, in the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various studies including the influence of the transition of care for grandchildren, the characteristics of grandparents, grandchildren's adult children, grandchildren's characteristics, caring time, caring institution use and diverse researches including clinical diagnosis regarding caring strength and grandparents' depression levels.